2021 · 봄호 | VOL.12

성곽마을

성곽마을, 그리고 사람

봄호 특집 성곽사협 정기총회 현장스케치 02
기획 코너 다함께 모여라 모이소 광희장충 성곽마을 04
성곽마을 이모저모 08
우리마을 일기장 10
성곽마을 일정공유 12



삼선권 장수 성곽마을 | 장수마을 딱지길을 따라 내려오는 봄풍경 ©한설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현장스케치



2021년 2월 20일(토)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성곽사협) 정기총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2019년 창립총회 이후 2020년 3월 행안부의 승인이 되고 정식 활동을 시작 한 이래로 열린 첫 정기총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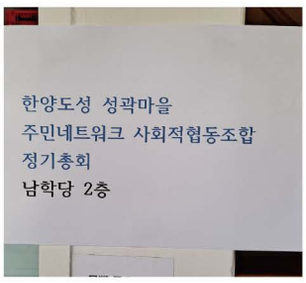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1년 성곽사협 정기총회
- **일 시** 2021년 2월 20일(토) 오후 2시
- **참여인원** 23명(임원포함 조합원, 예비조합원)
- **주 최**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 **장 소** 남학당(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15-4, 2층)

정기총회 준비 이사회

알찬 정기총회의 준비를 위해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성곽사협) 사무국과 이사회는 여러 차례 사전 회의를 진행 했습니다. 임시 이사회를 통해 총회의 안건들을 정리했고, 감사보고서를 받기 위해 미리 총회 결산자료를 정리하고 두 분의 감사님께 감사 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이었지만 이사님들의 노하우와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로 다져온 팀워크가 작동되는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성곽사협 조합원들의 소중한 만남





정기총회에는 총 30명의 조합원 중 23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총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성곽사협이 직접 준비한 첫 정기 총회이니만큼 다양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곽사협 조합원들에게 나눠드릴 출자증서와 총회자료, 이사장님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 사회카드, 방역을 위해 준비한 체온계와 손소독제 등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위해 세세하게 준비하여 만남의 소중함에 성곽사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0년 성곽사협 사업 및 활동 돌아보기

김덕삼 이사장님의 개회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창립총회 이후 2020년 3월 조합이 사업자를 등록하고 펼친 2020년의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지난 1년간 성곽사협은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우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의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기획 공모사업을 통해 '한양도성 성곽마을 마을기록 활성화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조합은 성곽마을기록단을 양성했고, 성곽마을 소식지와 계간지를 발간했으며, 성곽마을 온라인 도서전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감 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성곽마을 앵커시설 시범운영 사업을 위탁 받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범운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보조사업으로 '걸어보자 한양도성, 함께하자 성곽마을이라는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을 모두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주간탐방 8회, 축제탐방 9회, 야간탐방 5회로 총 22회의 탐방이 운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의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기획공모사업으로 '따로 또 같이, 함께하는 성곽마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성곽마을 각 마을의 주민한마당 행사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실행단을 운영하고, 비대면 시민참여 탐방 프로그램인 성곽마을 랜선 탐방을 운영 했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정기총회를 통해 각 사업 운영에 대한 자체 진단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조합의 사업비 집행 출자금 관리에 대한 결산과 김인숙, 채동균 감사님의 감사보고서를 승인 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이사와 사무국이 직접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니 서로 지난 1년간 정말 고생했다 토닥여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성곽사협 사업 및 활동 준비하기



2021년 좀 더 힘찬 성곽사협의 활동을 위해 운영조직과 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합의 운영체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기 이사회와 각 분과별 책임이사제를 도입하고, 현재 성곽마을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사무국의 운영계획을 승인 했습니다. 또한 각 성곽마을의 참여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만장일치로 충신권 성곽마을의 김영수 대표를 이사로 선출했습니다. 올 해는 성곽사협이 직접 운영하는 앵커시설 (성곽마을 박물관과 여행자센터)을 활용한 통합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한 사업 계획과 활동을 준비하기로 했고, 많은 조합원이 사업과 활동에 참여 하고 사업 및 사무국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한 혜택과 회비 규약 제정에 대한 총론을 승인 했습니다. 사업예산과 회비규약 및 회원혜택에 대해 정기 총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상세한 부분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을 기대하며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만남의 훈훈함으로 따뜻했던 총회는 보다 조직적이고, 보다 성숙한 성곽사협의 모습이었습니다. 먼 길 마다 않고 오신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조합원들의 모습에서 함께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고,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함께 모여라 모이소 광희장충 성곽마을

올해 2월 주민공동체운영회를 승인 받은 광희장충 성곽마을을 만나보았습니다. 앵커시설인 '모이소'에서 성곽마을 주민과 지역 단체, 청년 활동가, 입주 작가가 상생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는 활기찬 모습을 인터뷰에 담았습니다.

웃음과 함께하는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이승옥 |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
김경희 |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부대표
나카이가와 아츠코 |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총무



이승옥 /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

Q. 안녕하세요. 우선 광희장충 성곽마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다른 성곽마을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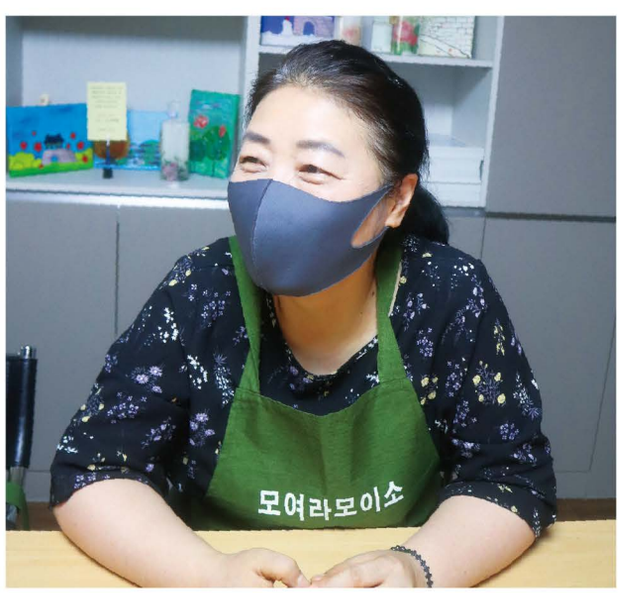
이승옥 광희장충 성곽마을은 중구 장충동과 신당동에 걸쳐 있는 성곽마을입니다. 성곽마을이지만 한양도성 성곽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광희문부터 시작해서 마을을 지나면, 다산성곽마을이 있는 건너편 신라호텔 방면(다산성곽길)부터 성곽이 다시 이어져요. 마을의 일부 주택에서 성곽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아쉽지만, 그 점이 다른 성곽마을과는 구분되는 우리 마을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Q. 광희장충 성곽마을은 최근 주민공동체운영회를 승인받으셨는데, 준비과정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이승옥 2020년 12월 10일에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주민공동체운영회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구성동의서는 총 130장 정도 받았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민들을 한 분씩 만나 뵙고 설득해서 동의서를 얻는 과정이었죠. 날씨가 한참 추울 때였는데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좋은 일 한다'며 흔쾌히 바로 서명해주실 때가 가장 인상 깊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Q.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이승옥 현재 회원은 총 16명입니다. 대표, 부대표, 총무, 감사, 고문까지 임원 5명과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숫자는 적지만 알차게 해나가고 있습니다.(웃음) 현재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반찬봉사나 솜씨자랑 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캘리그라피와 그림을 그리는 주민들이 모여 나름대로 솜씨자랑도 하고, 소소하게 냄비받침 같은 마을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만든 상품은 '성곽마을 박물관'(성북구 삼선교로4길 146-9) 뮤지엄숍에서 판매합니다.



김경희 /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부대표

Q. 광희장충 성곽마을 앵커시설인 '모이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모이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승옥 처음에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워크숍에 참여하며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2017년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고, 2018년 6월에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소통방 '모여라 모이소'로 개소식을 했어요. 이후에 4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요. 주민 간 단합도 잘 돼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모이소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나면 맨날 하하 호호 웃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요.



나카이가와 아츠코 (이하,아츠코) /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총무

Q. '모이소'를 운영.관리하며 가장 어려웠던 일,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이승옥 마을활동을 하며 오해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월급을 따로 받나?', '반찬 팔아서 어디다 쓰나?' 광희장충 성곽마을은 1년에 한번씩 판매수익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보람된 일은 주민공동체운영회 회원들과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것, "했으면 좋겠다!" 하면 합심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요. 그게 광희장충 성곽마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Q. '모이소'는 다양한 협력주체(중구마을넷, 청년작가 및 활동가)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고 계시나요?

김경희 가족 같은 관계예요. 원래는 모이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교류하기 위해 월례회의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승옥 솔직히 얘기하면 '거미굴' 팀(청년작가)은 오늘 다 같이 처음 인사했어요. 최근에 들어오기도 했고, 활동시간이 달라요. 우리들은 저녁에 귀가하는데, '거미굴' 팀은 주로 오후에 와서 작업을 하고 가거든요.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회원들과 함께 인사한 건 오늘이 처음이지만, 참 예뻐요. 청년작가들이 정말 자식 같고 손주 같은 마음이 들어요.

Q. 광희장충 성곽마을은 '주민네트워크 밴드'에 소식도 자주 올라오고,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김경희 주민과의 소통 덕분이에요. 지금은 여건상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회원들이 합류하면, 주민 간 소통과 함께 홍보를 통해 마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츠코 '성곽마을기록단'의 일원으로서 광희장충 성곽마을이 펼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고 싶어 기쁜 마음으로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더 많은 소식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Q. 앞으로 광희장충 성곽마을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하나요?

김경희 모이소가 '모여서 소통하는 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된 후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한여름이면 모이소 대문 열어 놓고 함께 영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이 나니 다른 주민들도 이해하며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라요. 서로 맘껏 소통하며 교류하는 경험을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할 수 있음을 광희장충 성곽마을이 보여주고 싶어요.

아츠코 주민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여 동네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모이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장소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광희장충 성곽마을 상품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모이소

지역과 함께하는
중구마을넷

심춘성 | 중구마을넷 단장
심윤영 | 중구마을넷 활동가

Q. 광희장충 성곽마을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심춘성 2015년에 김종대 성곽마을 코디네이터님을 '마을지원활동가' 활동으로 알게 되었어요. 2017년에 모이소 공간이 만들어질 때 소식을 듣고 관심 갖게 되었고요. 마침 공동체 활성화나 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광희장충 성곽마을과 함께 작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이후 인연을 맺어 저희 중구마을넷이 입주했고, 지금까지 모이소에서 가족처럼 재밌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모이소'에 '중구마을넷' 사무실이 있군요.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 활동이 있나요?

심춘성 현재 '기후위기'가 이슈 되고 있잖아요? 광희장충 성곽마을 및 중구 관내 시민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테마로 환경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나 자료들을 수집하고, 주민 및 지역 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열심히 알리고 있어요.

Q. 앞으로 광희장충 성곽마을과 모이소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하나요?

심춘성 우리 광희장충 성곽마을은 지금까지 공익적인 활동을 정말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 같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희장충 성곽마을에 마을여행 코스가 있는데, 마을의 첫 수익사업으로서 잘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잘 알려져서 광희장충 성곽마을, 더 나아가 중구의 '시민자산화'도 이뤄낼 수 있길 바라는 큰 포부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심윤영 보다 더욱 열린 모이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이 필요할 때 언제나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윤영 중구마을넷 활동가 [좌] | 심춘성 중구마을넷 단장 [우]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청년 작가와 활동가

류지영 | 작가 **정세희** | 작가
유은솔 | 활동가 **최영지** | 작가



유은솔 활동가

Q. 광희장충 성곽마을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활동장소를 광희장충 성곽마을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세희 2017년 모이소를 개관하기 전 계획단계에서 PMA엔지니어링과 주민 협의체의 심사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제가 활동장소를 광희장충 성곽마을로 정했다기보다, 주민께서 저를 선택해주셨죠.(웃음) 처음에 멋있는 한양도성의 이미지와 정다운 분위기에 매료되었어요. 개소식을 준비하며 함께 한 주민들이 정말 따뜻하고 가족 같아서, 이곳에서 쭉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은솔 인근 대학을 다니다 졸업한 후에, 우리 마을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가에 대해 궁금해서 인터뷰 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활동을 했어요. 그때 이승옥 대표님과 김종대 성곽마을 코디네이터님께서 많은 정보와 도움 주셨어요. 광희장충 성곽마을과 인연이 된 게 올해로 3년 됐네요.

류지영 을지로 쪽에서 작업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지하철로 어디로든 이동하기 쉬운 모이소의 지하 작업공간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친절히 맞아 주셔서 더욱 좋습니다.

Q. '모이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유은솔 장충동을 대상으로 '동네 친구 모임'을 진행하는데, 동네문화 기획을 통해 주제별 모임을 이루고 있어요. 모임을 모이소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모이소 활동내용이나, 광희장충 성곽마을의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모임에서 마켓을 열고 싶은데, 광희장충 성곽마을과 함께 연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류지영 최영지 작가님과 함께하는 작업실 '거미굴'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와서 청소할 때 거미들을 많이 만나서, 룸메이트로 삼고자 하는 마음에 정했고요.(웃음) 거미가 거미줄을 뽑아내듯이 작업을 쭉쭉 뽑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작업실을 스케치북처럼 쓰면서, '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해보자.' 며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진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는 집에 있던 색연필, 물감 등을 다 가져와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림을 그려보고 있어요.

최영지 저는 평면 위주 회화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색연필이나 종이 처럼 주로 들고 다니기 가벼운 소재로 작업하고 있어요. 저렇게 작게만 그리다가 크게 하고 싶어서. 작업실을 구해서 크게 확장해서 그리고 있고요. 서울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모여 옹기종기 모여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곡선과 단순한 형태로 그려 놓고, 레이어를 쌓아서 나중에 벗겨내는 식의 형태로 작업하고 있어요.



최영지 작가[좌] | 류지영 작가[우]

Q. 작년 <성곽마을 주민한마당>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곽마을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정세희 작년에는 광희장충 성곽마을 포스터를 작업하고, 주민들의 캐리커처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새로운 주민도 만나 뵙고, 다른 성곽마을과도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올해는 제발 코로나가 끝나서, 주민들과 함께 마스크 벗고 크레파스로 얼굴을 그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광희장충 성곽마을이 함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기록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류지영 작년 <성곽마을 주민한마당>에서 현장 사진촬영을 위해 참여했거든요. 마을탐방 프로그램에서 한양도성 성곽에 대한 역사적 배경 이야기와 함께, 장소별로 다양한 시 낭독을 들었던 경험이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행사를 관찰하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네요. 물론 '거미굴'의 전시도 좋습니다.



정세희 작가

Q. 마지막으로 광희장충 성곽마을에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은솔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들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시며, 마을에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시는 믿음직스러운 분들이 많으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희 광희장충 성곽마을 여러분 다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광희장충 성곽마을과 함께하며 학위를 땄어요. 앞으로 미술치료사로서의 역량도 발휘해서 주민 분들께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예술창작활동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모두 함께 하며 더 따뜻하고, 더 넓은 모이소가 되도록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함께 모이소 앞에서

다양한 주체가 함께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광희장충 성곽마을을 만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광희장충 성곽마을을 응원해주세요.

광희장충 성곽마을 앵커시설

- **모이소 | 중구 장충단로6가길 35-5**

성곽마을 이모저모

성곽마을은 마을별 재생활동으로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마을을 위해 이웃 마을을 보고 배우며 지혜를 쌓고 있습니다. 성곽마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정기이사회





성곽사협은 2021년 2월 정기총회 개최를 기점으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정기이사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월 이사회는 성북플랫폼에서 개최되었고 전략기획/공간운영/아카이브/축제탐방/교육의제/아카이브 등 분과별 사업진행 보고 및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한 조합원의 회비규약과 혜택에 대한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4월 이사회는 새롭게 문을 연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각 분과별 사업진행보고 및 토의 후 시범운영이 시작된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와 성곽마을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기이사회의 운영으로 2021년에는 더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착한여행, ㈜도스토리연구소와 MOU체결

성곽마을 재생자원 관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성곽사협은 지역거점시설을 활용한 '성곽마을 살이' 시범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역의 성곽마을, 지역의 협업주체와 함께 민-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팀을 탐색했습니다. 그 결과 성곽마을 스토리북을 제작한 바 있는 '㈜도스토리연구소(대표: 강희정)'와, 성곽마을 탐방해설사 양성 등을 함께 한 '㈜착한여행(대표: 나효우)'이 성곽사협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스토리연구소'는 성곽마을 박물관을, '㈜착한여행'은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운영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시범운영을 앞둔 2월 8일에는 두 사의 대표와 성곽사협 김덕삼 이사장이 지역거점시설 협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두 사는 성곽사협의 법인조합원으로 상품개발 및 운영·교육·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 함께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곽마을 박물관과 성곽마을 여행자센터 오픈

성곽마을 살이(Citywall Village Life) 서비스 시범운영 시작







3월 16일부터 성곽사협은 성북구 삼선권 성곽마을 앵커시설 2개소를 '성곽마을 박물관'과 '성곽마을 여행자센터'로 조성해 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행을 테마로 마을을 걷고, 앵커시설을 통해 성곽마을의 공간을 체험하고, 성곽마을의 기록을 읽고 성곽마을 상품으로 기념하는 '성곽마을 살이(Citywall Village Life)'입니다. 장수마을에 조성된 성곽마을 박물관(성북구 삼선교로4길 146-9)은 성곽마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각 성곽마을 주민들이 기획한 다양한 상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삼선3에 위치한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성북구 삼선교로4길 89)는 성곽마을 탐방 정보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가치공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두 지역거점시설과 성곽사협의 서비스는 한양도성과 성곽마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던 시민과 성곽마을 주민에게 유익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곽마을의 가치공유를 확산하기 위해
마을은 오늘도 내일도 성장합니다.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MOU체결 및 지역상생협의회 투어 진행







성곽사협(이사장 김덕삼)과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단장 김경환)은 4월 6일 킹고스타트업 스페이스에서 성곽마을 재생과 지역상생의 성공적 성과도출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이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지역상생협의회의 성곽 둘레길 투어가 있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성곽사협 소개, 한양도성 성곽길 걷기,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와 성곽마을 박물관 투어로 꾸려졌습니다. 종로의 다양한 기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지역상생협의회는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와 박물관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투어를 통해 지역상생 분야 연계사업 아이디어가 충분히 발굴되어 종로의 다양한 단체와 협업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함께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곽마을 앵커시설 운영역량강화 기초교육

1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성곽마을 앵커시설 운영역량강화 기초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곽마을 앵커시설 통합운영 지원용역'에서 앵커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토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차 '공간운영 회계실무'에서는 각 마을의 수입지출을 간단히 관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2차 '시설관리의 기초'에서는 앵커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간단한 수리방법을 3차 '공간정리노하우'에서는 여러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앵커시설의 물품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교육인 '공간운영 기획·홍보 마케팅'에서는 공간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더욱 많은 주민들에게 앵커시설의 용례를 알리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교육은 각 앵커시설 운영자들이 공간을 비우고 움직이기 쉽지 않은 점과 방역지침을 고려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고, 실제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교육에 참여해 집중도가 높은 교육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성곽마을기록단 4월 첫모임

4월 15일, 2021년 '성곽마을기록단(이하, 기록단)' 첫 정기모임을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기록단으로 활동한 소감과 올해 진행될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난해는 기록단이 조성된 첫 해였지만 코로나19와 여러 상황으로 기록단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해 연대감은 없고 부담감은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앞으로는 기록단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사 작성법과 원고 첨삭법을 더 배우고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막막할 때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록단 역량강화교육을 기획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기본교육 4회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정기적인 워크숍으로 글쓰기 역량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구상했습니다. 이번 기록단 모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가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오프라인 회의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하였습니다. 생업과 다른 일정으로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웠던 분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마을 일 기 장

그 동안 각 마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곽마을 재생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재생을 실천하는 정겨운 우리마을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를 조직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광희·장충



광희장충 성곽마을은 지난 1월 29일 중구로부터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을 받고, 2월 23일 중부세무소에서 단체등록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로서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모이소’의 무상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산



다산 성곽마을도 광희장충 성곽마을과 함께 주민공동체운영회를 승인 받았습니다. 다산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임원을 포함해 함께 담소정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의 뜻을 모아 운영계획을 세우고, 4월 12일 광희장충 성곽마을과 함께 주민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승인자문 심사를 받았습니다.

혜화·명륜



혜화·명륜 성곽마을은 3월 주민공동체 운영회 승인을 위해 구성동의서 징구에 나섰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루재’ 주변 이웃들부터 가가호호 방문해 이루재와 운영회 활동을 소개하고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에 문을 열어 주시고 동의해주신 분들 덕에 힘이 났습니다.

광희·장충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중구 마을넷, 어린이 도서관 느티나무의 대표들이 만나서 2021년 공동체 협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및 마을 역량 확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산



코로나 상황으로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담소정의 운영위원회가 재개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진행 사업 정리, 총무의 회계보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반찬 나눔과 이웃판매, 수세미 제작 등으로 담소정 재정을 탄탄히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혜화·명륜



혜화·명륜 성곽마을 주민과 성균관대 학생이 만든 마을여행 ‘협동조합 돌레길’은 ‘성곽사협’과 함께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성곽마을 재생과 지역상생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킹고스타트업 스페이스 혜화’에서 4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성곽마을 앵커시설,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성북권



3월부터 서울시민정원사 6기 가드너들이 자원봉사로 성북플랫폼의 황폐화 되어있는 앞뜰과 뒤뜰을 정리하고, 가드닝을 시작했습니다. 성북플랫폼에서 시작해 성북동 정원지도를 그리며, 성북구립 거리정원과 심우장의 한옥마당, 성북동 비둘기공원, 북정 우물터, 한양도성 백악구간의 혜화·명륜 성곽마을과 북정 성곽마을 사이 암문 앞 정원의 모니터링과 가드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희·장충



4월 23일 광희장충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모이소에서 회원들이 모여 '엔젤반찬'으로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엔젤피그 솜씨나눔'으로 머그컵에 그림을 그려 넣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날은 모이소에 2명의 청년 작가가 새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곽마을 주민 한마당 영상을 보면서 성곽마을의 가치 공유 활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선 3·6·9



369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앵커시설 예술공방에 입주해 개인작업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해 나갈 예술가를 모집했습니다. 예술공방은 입주작가의 공유공간과 개인 작업 및 레지던시로 이용하는 다락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명의 작가가 입주할 수 있는데, 기존 활동 작가 2명이 입주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에 1명을 추가모집 했습니다.

함께 해서 따뜻하고 즐거운 성곽마을

행촌권



삼일절에 맞추어 행촌권 성곽마을에 딜쿠샤 전시관(종로구 행촌동 1-88) 이 개관했습니다. 딜쿠샤는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이라는 뜻으로 3.1운동을 세계로 알린 앨버트와 메리 테일러 부부가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되기 전까지 살았던 가옥을 최근 복원 했습니다. 무료 개방이지만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해설사의 진솔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충신권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종로5.6가동 주민센터에서 <저녁에 꽃피는 캘리>수업을 진행합니다. 대면교육이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비대면 영상수업으로 운영되기에 코로나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캘리그라피를 배울 수 있습니다. 퇴근길 감성 글씨에 흠뻑 취하는 목요일 저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창신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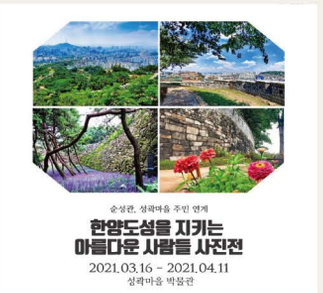
2월부터 종로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창신숭인 지역을 대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신길과 지봉로 구간에 밀집한 불법·노후 간판을 한글 디자인 중심의 친환경 LED 간판으로 교체해 골목과 가게가 새롭고 깔끔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곽마을 일정공유

앞으로 성곽마을과 주민네트워크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성곽마을 재생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성곽마을 박물관, 한양도성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 사진전 초대

기 간	3월 16일 (화) ~ 3월 28일 (일)
장 소	성곽마을 박물관(서울 성북구 삼선교로4길 146-9) 4호선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내 용	지난 제8회 한양도성문화제에서 한양도성 시민순성관과 성곽마을 주민이 촬영한 **한양도성과 성곽마을 사진 초청 전시**
예 약	네이버 예약, 네이버에서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검색



▶ 성곽마을 박물관, 성곽마을 관련자료 기증 이벤트

성곽마을 박물관에서 주민 여러분이 보관 중인 '성곽마을 관련 자료'를 기증받습니다.

기 간	3월 16일 (화) ~ 3월 31일 (수)		
방 법	**방문 참여 |** 성곽마을 박물관 1층 아카이브실에 비치된 마을별 기증함에 넣기 **이메일 참여 |** 성곽마을 관련 발간물 중 전자파일과 영상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 기증자명,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기증 가능 자료	**방 문**	인쇄물	성곽마을 관련 발간 책자, 리플렛, 지도, 포스터, 가이드 북 등
		사진	성곽마을에서 찍은 옛날 사진, 성곽마을 행사 사진
	이메일	전자파일	성곽마을 관련 PDF 책자 및 파일
		영상물	성곽마을 관련 영상
참여혜택	참여자에게 이벤트 종료 후 성곽마을 박물관 입장권과 기념품 증정		

▶ 성곽마을 여행자센터,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

기 간	4월 3일(토) 오후 1시/2시반 | 총 2회
장 소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서울 성북구 삼선교로4길 89) 4호선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내 용	주민재능나눔카페로 충산권 성곽마을 이소 박수현 작가와 함께 전각으로 수제도장 만들기
예 약	네이버 예약, 네이버에서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검색



▶ 성곽마을기록단 역량강화 교육 진행

차 수	일 자	내 용	강 사
1 차	5월 3일 (월)	한양도성 성곽마을 아카이브의 이해	정지혜 (도시공감협동조합)
2 차	5월 10일 (월)	저작권과 초상권, 글쓰기 전 알아야 할 상식	김용화 (동작 MOM 매거진)
3 차	5월 13일 (목)	취재, 인터뷰, 팩트체크	
4 차	5월 17일 (월)	기사작성 워크숍	

창간일 | 2018.05 **발행일** | 2021.04 **홈페이지** | seoulcitywallvillage.modoo.at **문 의** | 010-6587-9545
발행 및 편집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지 원** |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